

전북 · 충북 한우개량농가 동우회 정기모임 및 교육



한우개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한우의 미래지향적인 개량을 통한 고능력 번식우를 만들며 우량송아지의 생산 및 보급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각 시·군의 우수한 번식 및 일관경영

농가가 만든 전북 · 충북 한우개량농가 동우회의 정기모임 및 교육이 7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이루어 졌다.

7월 26일 전북한우개량농가동우회(회장 소



순배) 정기모임

- 교육장소 : 축산연구소 가축유전시험장 (전북 남원)
- 교육내용 : 한우 번식생리 및 인공수정 기술 교육
- 교육강사 : 축산연구소 가축유전자시험장 손동수 박사

7월 27일 충청한우개량농가동우회(회장 김재하) 정기모임

- 교육장소 : 충북 농업기술원(충북 청원)
- 교육내용 : 일본의 육우개량 현황
- 교육강사 : 한국종축개량협회 김윤식 부장

계속되는 한우산업의 성공을 저해하는 불안



조병대 회장 환영사

요소로 인하여 우리 한우농가의 근심과 걱정은 날로 더해져 다가올 FTA에 의한 본격적인 수입육 및 수입생우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모임에 참석한 전북·충북 한우개량농가 동우회원들은 한우산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량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며 농가 스스로의 개량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



가축유전 자원시험장 손동수 박사



인공수정기술교육



한우개량부 김윤식 부장

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종축개량협회 조병대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우개량을 위해서는 우리 한우농가의 등록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국가단위의 한우의 개량을 위해서 등록우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것이며 차후 2년 안에는 개량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하고 그에 따른 유전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두수 등록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 한우산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농가들이 각 도마다 개량동우회를 통하여 잘 구성된 것에 대해 한우농가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한우개량동우회에서는 이번 정기모임 및 교육을 한우번식생리 및 인공수정기술교육



일본 육우의 개량현황 교육

을 주제로 하여 자가수정에 대한 교육을 회원들간의 정보교류와 화합으로 마쳤으며 특히 소순배 회장은 회의에서 “현재 우리 한우산업의 모태가 되는 축산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으로 농가의 부담이 너무도 크며 축산업을 시행하는 농가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속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가축유전자시험장 손동수 박사

인공수정기술교육

또한 충북한우개량동우회에서는 일본육우개량의 현황을 주제로 하여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일본의 개량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개회사에서 김재하 회장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개량의 정도가 다르지만 동우회의 발전을 밑바탕으로 광역적인 개량을 이끌어 충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전단위의 개량을 통하여 우수번식우군 집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